

친노 대선주자 '후보단일화' 가능할까

“공멸할순 없다” 원칙적 합의 수준

후보단립 '교통정리론' 제기
시기·방법 이견·성사 불투명

열린우리당 소속 친노 주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시도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범여권에서 대선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열린우리당 소속 후보는 이해찬·한명숙·유시민·김혁규·신기남·김두관·김원웅 후보 등 7~8명 선. 하지만 이들의 지지율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등 비(非)우리당 후보들에 떨어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계속 후보단립 양상을 보이던 '공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후보단일화를 제안한 쪽은 한명숙 전 총리다. 그는 지난 7일 이해찬 전 총리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에 후보단일화를 제안했고 13일 오전 이 전 총리와 회동을 통해 단일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명숙 전총리 출판기념회에서 범여 대선주자들이 축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동영, 추미애, 유시민, 신기남, 손학규, 김두관, 강운태 후보. /연합뉴스

양측은 이날 합의문에서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후보 등 평화개혁 진영의 정통성 있는 후보들간의 단일화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단일화 시기와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후보 단일화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해찬·유시민·한명숙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참여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김혁규 의원 등 나머지 후보는 열린우리당 사수파에서 친노 후보 전체의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혁규 의원은 13일 의원직을 사퇴하며 열린우리당 사수를 선언했다. 또 신기남·김두관·김원웅 후보 모두 신당 참여에 부정적이다. 당초 김혁규 의원은 유시민 전 장관과 김두관 전 행정부장관을 만나 ‘영남후보 단일 대오’ 가능성을 타진했었다. 범여권이 ‘서부벨트’를 공략하는 상황에서 영남권을 분점이 아닌, 독점하는 후보가 나와야 대선승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제안에도 직답을 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장관은 13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아직까지 후보단일화 논의는 이른 것 같다”면서도 “경선을 하다가 미래지향성 면에서 유사한 후보들이 제휴하는 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둔다”고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신기남 의원은 “지지를 4위 이하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면 그 지지율은 결국 1, 2위(손학규, 정동영)에게 간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김두관 전 장관측도 “세력이 드러

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단일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친노 후보 진영간 물밑에서는 ‘누가 이미 마음을 잡았다더라’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캠프 진영은 “말도 안되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하고 모두 “끝까지 경선을 완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때 신당 참여 친노주자들과 당 사수와 친노 주자들이 나누어진 채 각각의 후보단일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韓, 아프간 강경대응 두차례 막아”

군사작전·탈레반 지도부 가족 체포 등

더 타임스 보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군 연합군이 탈레반 세력을 상대로 한국인 인질 구출작전과 탈레반 관계자 체포 등 강경 대응을 두 차례 준비했으나 인질의 대거 회생 등 참극을 우려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의해 이 같은 대응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더 타임스의 가즈니발 기사에 따르면 미라주딘 파탄 가즈니 주지사는

“우리가 군사작전을 펼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23명이 납치된 가즈니주 카라바흐 지역의 고속도로 치안담당자인 압둘 라힘도 “가즈니주 지사가 군사작전을 감행하려했으나 한국정부 가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현지의 고위 정보기관 관계자는 “우리는 탈레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을 체

포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이를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을 납치한 세력은 세 명의 다른 탈레반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들은 돈을 원하는 쪽과 포로 석방을 원하는 쪽으로 갈려 있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인 납치 당시 버스를 몰던 아프간 운전사는 탈레반 세력에 한국인들의 여행 경로 등의 정보를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아프간 경찰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연합뉴스

‘장미꽃 21송이’ 간절한 바람



‘탈레반 송’ 감동

국내·외 UCC사이트서 호응

탈레반에게 보내는 노래를 담은 동영상 UCC(손수제작물)가 유튜브, 판도라TV 등 국내외 UCC사이트서 인기를 얻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의사 겸 불교음악가인 이진호(34)씨가 유튜브에 올린 ‘탈레반에게 보내는 노래(song for taliban)’라는 제목의 동영상 상이 평화를 기원하는 노랫말과 잔잔한 음율로 네티즌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동영상은 탈레반에 피랍됐다가 희생된 고 배영규씨와 심심민씨 등 피랍자의 사진과 함께 ‘더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이 노래는 우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한 노래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한다. 동영상에는 이씨가 활동하는 아마추어 밴드 ‘야소다라’가 읊조는 ‘Change the World’ 앨범에 실린 ‘평화의 노래’라는 곡이 실려 있다.

이 노래는 ‘지구엔 하나, 세상도 하나이다. 왜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가’라며 ‘탐욕과 욕망이 종교에서 비롯됐다.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신이 바라는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자’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가족들이 장미꽃 21송이를 들고 서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대북경협” 등 대통령에 곧 보고

열린우리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는 13일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차원에서 정상회담에 필요한 의제를 준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당 동북아평화위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 관련 경제계인사 간담회’에 참석해 “13~14일 대북 경협사업, 토목·건축분야 교류사업 등 경제교류협력 사항에 대해 경제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북핵문제 때문에 진

도가 빨리 못 나갔지만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정리되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확대이고, 남북이 상호 상생하기 위해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임진강~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도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국현 사장 대권행보 본격화

23일 사실상 정치참여 선언

범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오는 23일 사실상 정치참여를 선언, 대권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 사장은 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국민 희망제언’ 행사를 갖고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함동해권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비롯,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각 부문 비전을 발표한다. 행사에는 문 사장을 지지하는 일부

기업인, 경제학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며,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출신의 원혜영 이계안 의원 등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인들이 문 사장에게 대해 기술한 ‘문국현 솔루션’ 출판 기념회도 진행되며, 문 사장은 내달께 자서전 성격의 저서도 펴낼 계획이다. 문 사장측은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지부를 결성중인 지지도팀 ‘창조한국’ 발족식도 다음달 2일께 서울교육문화관에서 갖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필수요약정리·유한킴벌리 17명, 8명! 기본서 특별반. 개강 8월 1일. 공인중개사시험/ 전국합격률 1위. 문의: 361-8111, 529-8111

S the 1 요리학원. 2학기 카빙(carving)·과일조각장식·스시(초밥)수강생모집.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 당신께 초대합니다. 문의: 385-0723-4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관절염·조루·허리디스크. 문의: 531-0700, 523-4600, 011-9612-5330